

## 기획특집

# 제주의 문화유전자를 발전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sup>1)</sup>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경기개발연구원장 좌 승 희

## 1.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조건

왜 세상에는 부유한 집이 있고 가난한 집이 생기고, 흥하는 지역이 있고 낙후된 지역이 생기고,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생기는 것인가? 부자가 되고 흥하는 지역이 되고 선진국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하는 길은 무엇인가?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을 따라 배우는 과정이다. 그것도 배우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 무단복재하면서 나를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사회의 선배와 스승들로부터 그리고 친구로부터, 더 가깝게는 배우자로부터 서로 인생의 성공노하우를 배우고 나를 키워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생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은 흥하는 이웃 지역을 선례삼아 배우고 국가는 흥하는 이웃 국가를 선례삼아 배우고 자신들을 키워나간다.

문명의 발전사를 보라. 선진문명이 있어 후진문명이 따라 배우고 앞선 선진국이 있어 후진국이 따라 배워 도약을 이룬다. 세계경제발전사를 보자. 영국의 산업혁명의 노하우는 독일을 거쳐 유럽으로, 영국의 식민지 북미대륙으로 퍼져나가 지난

200년간의 서구주도의 시대를 열었다. 영국의 발전의 노하우는 후발자들의 무임승차, 복재에 의해 세계로 퍼져나갔다. 20세기 들어 일본은 독일을 무임승차하여 동양에서 제일먼저 산업화를 이루고 서구의 일원이 되었다. 20세기 후반 한국을 포함 아시아 4룡은 이들 선진국들의 발전 노하우를 무임승차하면서 중진국으로 도약하였다. 일본의 성공노하우가 무임승차와 무단복재의 선례가 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성공노하우를 무임승차하고 있고 인도, 브라질 등이 뒤를 추격하고 있다.

왜 개항과 개국이 중요한지 이제 알 수 있다. 내가 내 주위에 흥하는 이웃을 두고 더 배우지 않고 내가 흥할 수는 없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나의 스승을 찾아나서야 하며, 우리 제주도는 더 흥하는 지역을 찾아나서야 하며, 우리나라는 개방을 통해 이웃 국가의 성공노하우를 배우러 나서야 한다. 이는 바로 성공의 선례를 따라 배우고 흥하는 기업과 사람들을 불러들려 무임승차, 무단복재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남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이용하여 더 나아가기 위함이다. 흥하는 이웃들을 머슴삼아 우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인 것이다.

그럼 모두 이렇게 선진 사례를 따라 배우면 모두

1) 본고는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총연합회” 간 『지구촌 제주인 2010』(2010)에 기고한 필자의 “자본주의 신(新) 발전원리와 제주도민통합의 길”을 수정, 보완, 확대한 것이다.

다 잘 살고 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왜 후진국이 생기는 것인가? 왜 모든 나라, 지역, 가문마다 성공노하우를 배워 자신들을 개발함으로써 흥하는 길로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부자가 되는 법이 있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노하우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나 지역,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이를 활용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나 지역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들 흥하는 길로 나아가려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회가 내부적으로 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 소위 발전의 문화유전자가 충만하여 너도 나도 새로운 생각과 지식을 배우고 성공노하우를 배워 나의 발전과 사회,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흥하는 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발전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 우선 성공의 선례를 배울 수 있는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하며, 둘째로 사회 자체가 내부적으로 발전에의 의지가 충만하여 선례를 선용하려는 자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제 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을 내걸고 개방에 나서야 하는지는 보다 명확해진다. 선례를 따라 배우기 위함인 것이다. 자유도시의 모델로서 홍콩을 얘기하고 싱가포르를 얘기하고 두바이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외부의 성공을 이룬 선례들을 따라 성공노하우를 배우기 위함이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자체가 바로 외부의 힘을 지렛대로 삼아 우리의 발전을 배가할 수 있다는 원리에 기초하는 것이다. 법제도를 바꾸어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외국 성공기업과 경제인들을 유치하여 그 노하우를 배우고 활용하고자 함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만으로 제주경제의 도약이 담보되지는 않는다. 발전하는 사회가 되기 위한 두 번째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주경제는 외부자본과 기

업들의 영향 하에서 자생력을 키워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선진기업들의 진출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실패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제주의 문화유전자가 발전 친화적이지 못하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투자가 저절로 늘어날 수는 없다. 너도나도 성공의 대열에 나서고자 스스로 노력하고 남의 성공을 모범삼아 나도 발전하려는 성공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어야 적극적으로 외국 투자를 수용하고 따라 배우고 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제주도민의 힘으로 가꾸는 자생력 있는 국제자유도시가 가능해진다. 제주의 문화유전자가 성공과 발전 친화적으로 바뀌지 않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 2. 제주사회, “착한 사람”이 없는 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요즘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국민들끼리 나뉘어 싸우고 화합이 되지 않아 사회가 불안하다. 여야 간의 반목은 물론 같은 정당 안에서도 서로 갈리고 지역 간에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다투고 지방간에도 서로 자기이익을 챙기려고 서로 아우성이다. 도통 양보라는 것은 모르고 무얼 요구해도 들어줄 수 없는 황당한 요구를 막 무가네식으로 한다. 모두가 잘못은 남 탓이다. 자기 잘못을 그냥 시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야가 싸우는 걸 보면 세상에 잘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잘못된 편은 하나도 없다. 인터넷상에서의 다툼은 참아 봐주기가 어렵다. 남을 험담하고 폄하하는 일이 일상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위원회라는 것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예로 봐서 잘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보고서나 몇 권내고 넘어 갈 공산이 크다.

이러한 이념적 분할과 다름, 편 가르기, 남 폄하하기, 남 탓하기 등의 문제는 제주도라고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화합이 안 된다고 한다. 금년 제주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도민통합이라 한다. 오직 했으면 도정 목표를 아예 도민 통합에 둔다 했을까. 제주사람은 무슨 일을 반대해도 목숨 걸고 극단적으로 한다고 한다. 해군 항 유치문제, 도지사 소환투표 문제 등등 최근의 사례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도지사 선거를 비롯한 제주지방선거의 양상을 보면 맹목적 편 가르기와 상대방 죽이기는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가 아닌가 싶다. 도통 요즘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라 불러줄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 3. 우리가 너무 사회주의적인 것은 아닌가?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세상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살기 마련이다. 비슷한 사람이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말한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이다. 왜 그런 걸까? 그것이 서로 편하기 때문이다. 세 동네에 이사 가면 제일 먼저 동네 분위기를 파악해야 한다. 안 그렇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도라이’가 되어 동네에 붙어 있지 못한다. 생각이 서로 다르면 다름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각 중에 제일 중요한 생각이 무엇일까? 바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인생관이라 하기도 하고 세계관이라 하기도 하고 이념이라 하기도 한다. 세상의 이치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인생관이 다르고 세상의 이치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같이 살기가 힘들어 진다. 이러한 개인들의 생각, 인생관, 세계관, 쉽게 말해 개인들의 이념이 모여 사회의 이념,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를 일컬어 문화라 부른다.

옛날 러시아 조그만 마을에 이반이라는 농부가 염소를 키우고 있었다. 이 염소가 워낙 우유를 많이 생산해서 동네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마을에 천사가 나타나 마을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 하였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라는 것이 같은 염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 같이 이반의 염소가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러시아가 그래서 사회주의 종주국이 되었다는 주장도 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생각이 강한 사회는 사회주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주의체제가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아 망한지도 20년이 넘어 가지만 우리 북쪽 형제들은 아직도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가진 자와 없는 자간의, 출세했다는 사람들과 안 그런 사람들 간의, 앞 선자와 뒤떨어진 자간의 갈등은, 사회주의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해도,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경제를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바로 이러한 부의 불평등, 지위의 불평등, 발전의 불평등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이를 가라앉혀야할 정치는 오히려 이를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불평등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한다는 생각과 지금의 불평등은 도가 지나치니 이를 보다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서로 끝없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중국보다도 더 사회주의적이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유행하기도 했는데 아마 이 농담이 진담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사회의 문화는 대단히 사회주의적이다.

남한과 북한이 다른 제일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이념이 다른 것이다. 북한 사람들이 믿는 세계관, 인생관과 남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세계관,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념은 모두가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남한의 이념은 요즘 큰 혼란 속에 있기는 하지

만 그래도 다수가 어느 정도의 차등, 불평등은 용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러나 왜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이 다 망했는데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아마도 우리의 의식 속에 흐르는 문화유전자가 남이든 북이든 너무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일지도 모를 일이다. 요즘 우리사회는 너무 평등을 지향해서 차이나 차등을 용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회가 다양성이 적고 획일화되고 유행도 한 방향으로 너무 쏠리는 경향이 있다. 획일화되는 경제는 역동성을 갖지 못한다. 오늘날 한국경제, 제주경제의 어려움도 다 우리사회를 덮고 있는 “모두 평등해야 된다”는 이념과 이를 실천한다는 각종의 평등주의적 규제들 때문인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 수도권에 대한 규제, 부자들에 대한 편혜,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획일적 우대, 지방에 대한 획일적 우대, 취약계층에 대한 획일적 우대, 평준화 교육에 대한 지지, 노조에 대한 지나친 우대 등등 한국 사회의 핵심 정책이슈들이 다 평등의 이상 실현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다 경제와 일자리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4. 평등의 이념은 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모순론에서 왔다

세상이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의 뿌리는 어디인가? 원래 인간은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경쟁심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이 평등해야한다는 이념은 세상의 이치에 대한 믿음으로서 본성과는 다른 것이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그리고 노력에 따라 그 얻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평범한 세상의 이치인데도 다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념은 어디서 왔을까?

1848년 칼 마르크스라는 학자는 국제공산주의자들의 모임에서 발표된 공산당선언을 작성하였다.

이 공산당선언에서 마르크스는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세상은 불평등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하였다. 이 세상은 가진 자(자본가)가 못 가진 자(노동자)를 착취하는 계급투쟁의 장이며, 그래서 부의 불평등이 초래된다고 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쫓겨하여 자본주의사회를 무너뜨리고 모두가 평등한 공산주의사회를 세워야 한다 하였다. 그는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 때문에 결국 멸망할 운명이지만 무력투쟁을 더 선동하였다. 무력으로 공산혁명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을 따른 러시아를 위시한 많은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지난 수십년 간 실험을 하였으나 그 결과는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참담한 실패였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모순론은 우리 모두의 생각 속에 살아 있다. 사회주의를 거부한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도 사회주의 자체를 거부했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수긍하고 이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정자본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라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미한 혼합경제체제를 추구해 왔다. 사회주의권과의 대결 속에서 그들의 ‘평등한 사회 실현’이라는 그럴듯한 이념에 대항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평등의 이념을 경제사회정책 속에 담고자 노력한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1세기 인류의 보편적인 자본주의관은 이 체제가 불평등하다는 칼 마르크스의 이념을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고쳐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의 뿌리는 그래서 칼 마르크스에서 온 것이다.

오늘날 길거리에 나가 ‘이 세상이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소리쳐 보라. 아마 심증팔구는 모순이라 할 것이다. 이 생각의 뿌리는 바로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모순론에 닿아 있는 것이다. 인류의 사상사에서 마르크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한 그 수많은 사상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르크스의 유령은 오늘날의 한국

과 제주도에까지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이념 대립이 그렇고, 제주도의 경우는 4.3 사건이 그렇고 지금의 도민들 간의 분열이 다 여기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안에서의 끝없는 투쟁과 이를 통해 자기 몫을 챙기고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내가 산다는 생각, 더 나아가 이러한 투쟁은 이 세상의 모순을 만들어내는 기존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생각들의 뿌리가 바로 마르크스 자본주의 모순론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 모순론이 21세기 인류의 가장 보편적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 5. 자본주의 신(新) 발전관 :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

그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관은 옳은 것인가? 그래서 마르크스적 자본주의는 이미 본인이 분석한대로 중국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선은 인류가 일만 오천년도 더 되는 세월 동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분업과 전문화원리에 기초한 교환경제시대, 즉 수렵과 채집의 시대를 멸망하지 않고 생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번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마르크스적 자본주의관이 잘못되었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흥미롭게도 최근의 새로운 과학관에 의하면 만일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호혜적 만남이 없는 계급투쟁과 착취가 자본주의의 진정한 모습이라면 이 체제는 결코 그렇게 오래 동안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마르크스의 세계관은 모순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라는 허상을 그려 놓고 이를 타파하기위한 공산주의라는 또 다른 체제를 그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가 그 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보는 새로운 과학관이 빠르게 퍼

져나가고 있다. 부분이 합쳐 부분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복잡한 세상은 부분만을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기존의 과학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과학관을 복잡성과학(complexity science)이라 하며, 기존의 과학관을 환원주의(reductionism)라 한다. 환원주의란 아주 작은 부분을 잘 분석하면 그 전체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복잡성과학은 단순히 부분을 알고 이를 합친다고 전체를 알 수는 없다고 본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전체는 부분과 달리 더 복잡한 고차원의 속성을 가진다고 보며, 이런 현상을 창발현상이라 부른다. 창발현상을 가져오는 원천은 바로 부분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되는 소위 시너지효과에서 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부분만을 분석해서는 전체를 알 수 없다. 세상을 이해하려면 사물을 유기적 전체로 보는 전일주의적(全一主義的, wholistic) 관점이 필요하다.

이 세상 만물은 서로 다른 개체끼리 만나 힘을 보태어 훨씬 더 큰 힘, 즉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부분과는 다른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 나간다. 바꾸어 말하면 더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한 경쟁은 있기 마련이지만 결과적으로 더 좋은 이웃을 만나 힘을 합치지 않고 더 높은 질서를 창출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생명현상은 어디서 왔을까? 인간의 육체는 세포로 구성되지만 단순한 세포의 합이 인간의 생명현상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인간의 생명현상을 이해하려면 인간을 그 전체로 이해해야한다. 세포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기는 신비한 시너지 효과가 바로 생명을 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효과를 제거하면 세포덩어리는 남지만 생명현상은 사라진다.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고뇌하는, 에너지를 섭취하고 배설함으로써 삶을 유지하는 생명현상은 창발현상이다.

자본주의 사회나 시장경제의 작동원리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경제사회발전이란 더 좋은 짝을 만나

더 큰 힘을 창출함으로써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마차를 타던 경제가 자전거를, 자동차를, 기차를, 비행기를, 우주선을 타는 사회로 발돋움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개인들이 힘을 합쳐 강한 조직을 만들어내고 보다 훌륭한 개인들과 조직들이 힘을 합쳐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만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계급투쟁이나 착취가 아니라 협력을 통한 시너지창출과정을 통해 변화,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길은 나보다 훌륭한 이웃을 두어야 한다는, 즉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신(新) 자본주의경제 발전관이 도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는 선발자가 후발자를 착취해서가 아니라 후발자가 선발자를 무임승차하여 베낌으로써 동반 성장하게 된다. 우리 모두는 남의 노하우를 모방하고 베낌으로써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앞선 선각자, 그것이 자본가이든, 혁신가이든, 부모든, 선생님이든, 선배든, 더 나은 동료든, 더 나은 후배이든, 이들을 청산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들을 역할 모델로서 이웃으로 두고 “베낌”으로써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관은 복잡한 세상의 이치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더 좋은 이웃이 없이 모두가 같고 평등한 사회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가 없어 영원한 휴식을 벗어날 수가 없다. 같은 세포끼리의 만남은 세포덩어리를 만들어낼 뿐이지 생명을 창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복잡성과학의 기본원리이다. 앞선 자를 청산하여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말로는 이미 정해진 길이었다.

이 세상은 어두운 면도 있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서로 배우고 도움으로써 살길을 찾는 그래서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는 변화무쌍한 복잡한 세상이다. 차이와 차등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훌륭한 이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는 흥하고 역으로 평등을 내세워 흥하는 이웃을 청산하려는 사회는 필히 몰락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새로운 과학관의 시사점이다. 이제 인류는 마르크스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칼 마르크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 6. 경제발전이란 “흥하는 문화유전자”의 복제·전파를 통한 동반성장 과정이다

왜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 좋은 이웃만을 찾아 나서는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친구를 사귀에 있어서도, 이웃을 사귀에 있어서도, 이사를 감에 있어서도, 시장에서 거래처단골을 정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고 마음에 맞는 훌륭한 사람과 지역과 회사만을 선택한다. 아무나 평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이웃들을 찾아 세상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일류학교를 선호하고 일류 기업을 선호하고 일류지역을 선호할까? 모두가 결국 훌륭한 이웃과 반려자들을 찾기 위함인 것이다. 왜 그럴까? 이를 통해 인생의 성공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성공의 문화유전자를 공유하기 위함인 것이다. 나보다 훌륭한 배우자를 두면 나도 가문도 발전하고 나보다 훌륭한 이웃과 벗과 동창을 두면 내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흥하는 사람의 주위에는 항상 흥하는 이웃이 많고 역으로 흥함이 없는 이웃의 주위에는 역시 흥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인생은 남을 따라 배움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은 무임승차이기도 하다. 태어나 부모한테 공짜로 키움을 받고, 형제자매로부터 공짜로 배우고, 사회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역사의 선각자로부터 인생의 성공노하우를 공짜로 배운다. 이 과정이 바로 문화유전자의 복제,

전과과정이다. 훌륭한 이웃이 없이 너도 나도 사회도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다. 나보다 더 훌륭한 이웃을 두고 그로부터 더 배우지 않고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발전친화적인 생각, 즉 문화유전자를 채화한 사람은 그 만큼 더 남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고, 이러한 문화유전자를 사회 안에 더 많이 퍼뜨리는 사회는 그 만큼 더 발전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흥하는 이웃의 노하우가 모두에게 복제, 전파되고 그래서 모두가 동반 발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칼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가진 자의 못가진자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 후발자가 선발자를 무임승차하여 같이 발전하는 “모두 다 같아지지는 않지만 다 같이 발전하는” 동반성장의 과정이다.

## 7. 흥하는 이웃을 키워내는 사회만이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인생의 무임승차자, 혹은 무단복제자이다. 그럼 우리가 무임승차 혹은 무단 복제할 흥하는 이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선진국이라는 사회에는 흥하는 이웃들이 넘치는데 후진국이라는 사회에는 흥하는 이웃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무임승차를 하고 싶으나 무임승차할 대상이 없으니 너도 나도 사회도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기 어려운 것이 후진국의 현실이다. 흥하는 이웃은 그렇게 쉽게 어디에서나 넘쳐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흥하는 나라와 어려운 나라가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운영전략이란 결국 어떻게 해서 흥하는 이웃들이 넘쳐나게 할 것인가의 전략인 셈이다. 바로 이것이 선진국을 지향하는 모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가 풀어야할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간단하나 실천은 어렵다. 발전을 이루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첫째 과제는 흥하는 이웃을 키워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가 해야 할 일은 흥하는 이웃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경제, 사회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 내어, 모든 사람들이 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훌륭한 사회지도자가 되고, 부지런히 일해 부를 쌓고, 인생에 있어 남의 모범이 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유인해 내는 일이다. 사회를 모순이라 생각하고, 매사에 반대나 하고, 내 실패가 남 탓이라 생각하고, 흥하는 사람들을 흉이나 보고 손가락질이나 하며 배울 생각은 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흥하는 이웃들은 안 생기며 경제사회는 정체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잘못된 이념을 바로 잡지 않고 발전을 이룰 수는 없다. 사회의 문화유전자를 발전 친화적으로 바꾸어 내야 한다. 즉 사회 다수의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거나 이반의 염소가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웃이 흥해야 나도 흥한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기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꿔내는 것은 교육과 설교만으로 되지 않는다. 지도자부터가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너와 나가 다 같이 흥한다는 발전친화적인 이념을 믿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역사에는 많지 않지만 이런 지도자를 가진 사회가 발전을 이룬 예가 있다. 싱가포르의 이광요 전 수상이 그렇고 우리나라의 개발연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다.

## 8. 제주도민 통합의 길 : 문화유전자를 발전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제주도의 문화유전자는 너무 평등주의적이다. 제주

에서는 흥하는 이웃이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다 같이 가난한 것은 참지만 어느 누가 뛰어나게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은 참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래서인지 훌륭한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남을 교훈삼아 배우기보다 내가 잘 났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래서 힘을 모으기가 어렵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적이라 했지만 제주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도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화합이 안 되고 매사에 힘을 모으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생각, 이념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흥하는 이웃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흥하는 이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사회의 통합은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적당히 엮어서 기본 좋게 해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사회의 이념을 하나의 통일된 이념으로 바꿔내지 않고 통합은 안 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같은 이념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의 안정 다수가 같은 이념을 나누어가짐으로써 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때 사회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이란 첫째 다수의 구성원들이 사물 즉, 세상의 이치에 대해 같은 생각과 이념을 가져야 가능해 진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들이 다 옳을 수는 없다. 이념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이념으로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념을 평등의 이념으로 통합했지만 잘못된 이념으로 통일하는 바람에 우매한 백성들만 50-60년간 고생했다. 북한은 같은 이유로 아직도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통합의 두 번째 조건은 옳은 이념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럼 옳은 이념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념은 세상의 이치에 대한 생각, 믿음

이다. 따라서 특정 이념이 옳은지 아닌지는 그 이념의 현실 적합성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의 기능은 바로 지식인들의 책임이다. 진리탐구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밝혀내어 세상 사람들이 옳은 이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셈이다. 예컨대 지구는 둥근데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이념은 잘못된 것이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고 우기면 이 이념 또한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한때 인류는 지구는 평평하고 태양이 지구주위를 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다.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새로운 이념을 설파한 코페르니쿠스나 세상이 둥글다는 사실을 검증함으로써 세상이 평평하다는 이념을 등골다는 이념으로 바꾸어 내는데 기여한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은 전 세계 인류의 이념통합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한 지식인들인 셈이다. 사회통합이란 이와 같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내는 작업이다.

필자는 여기서 대한민국도 제주도도 하루빨리 발전 친화적 이념인 새로운 자본주의 발전관으로 그 문화유전자가 바뀌어야 선진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sup>2)</sup> 다시 말해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새로운 자본주의 세계관이 제주사회에 퍼져나갈 때라야 제주도가 대한민국 1%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유전자가 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제주에는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일류들이 넘쳐나고, 흥하는 이웃들 간에 서로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인구는 1%이지만 그 경제적, 사회적 힘(비중)은 대한민국전체의 10%, 20%로 창발되어 대한민국 나아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의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 1% 인구의 제주가 10%,

2) 필자는 최근 이러한 주장을 담은 “대한민국 성공경제학-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저서(2010, 일월담간)를 출판하였다.

20%로 그 경제적 힘이 창발되어 지금의 자동차경제에서 우주선 경제로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나보다 더 나은 이웃으로부터 더 배우지 않고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인 지 자문해 보면 제주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쉽게 보일 것이다. 제주 1%의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흥하는 이웃을 옆에 두고 배움으로써 너도 나도 같이 창발하는 길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실현하는 책임은 물론 제주 리더들의 몫이다.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여 세상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내어 무엇이 옳은 이념인지를 밝혀내는 일을 해야 한다. 도민들에게 무엇이 옳은 생각인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면, 천동설이 주류였던 시절 지동설을 주장하여 곤욕을 치른 코페르니쿠스의 역할을 자임하는 지식인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주지식인 사회는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허구현날 불평등한 뉴 할 은 모순이라고 도민들에게 잘못된 자본주의관을 심어주고, 치른 코정치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준다는 감언이설로 도민들의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 또한 정치의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 언론 또한 도민들의 이념의 옳고 그름을 밝혀내고 옳은 방향으로 모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정론을 편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9. 새마을 운동에서 배우는, 제주도 지사의 역할

### 자조(自助)하는 마을만 지원한 새마을 운동

한국의 경제발전사에서 새마을 운동은 대단히 성공한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성공

의 원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없다. 그래서 여러 후진국에서 이 운동을 벤치마킹하려해보지만 아직 뚜렷한 성공을 거둔 예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동안 새마을 운동의 성공은 철저하게 성과에 기초하여 차별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마을만 지원하는 “차별화전략” 때문에 성공했다고 주장해 왔다.<sup>3)</sup> 새마을 운동은 열심히 자조하는 마을에만 지원이 집중되도록 차별적인 인센티브구조를 정착 시킴으로써 모든 마을들에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심을 유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70년부터 추진된 새마을 운동은 성공리에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이루어 내어 5년 뒤인 1974년에 농촌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도시의 가구당 평균소득을 앞섰고, 그리고 그 후 1978년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는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물론 5공출범 후 새마을 운동이 점차 정치화되어 정부의 지원이 차별화원리에서 벗어나 성과와의 연계가 약화되면서 농촌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운동의 성과도 미미하게 되었다.

이 운동을 주도한 박정희대통령은 항상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을 내걸고 성과를 내는 마을만 지원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실천하였다. 필자는 이 원칙을 경제적 “차별화전략”이라 불렀다.

“빈곤을 자기의 운명이라 한탄하면서 정부가 뒤를 밀어주지 않아 빈곤 속에 있다고 자기의 빈곤이 타인의 책임인 것처럼 불평을 늘어놓는 농민은 몇 백 년이 걸려도 일어 설 수 없다. 의욕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돈 낭비이다. 게으른 사람은 나라도 도울 수 없다.”<sup>4)</sup> 이것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새마을 운동 기간 중 계속해서 대통령을 통해 전달된 대 농민 메시지였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기본원칙에 대한 박정희

3) 좌승희(2006), 『신국부론』 굿인포메이션, 참조. 본고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일부내용은 동서에서 전제하였다.

4) 김정렴(1997), 『아 박정희』, 김정렴 정치회고록, 중앙 M&B, p.257에서 재인용.

대통령의 육성지시 내용을 들어보자.

“작년에 전국 32,000여개 부락에 대하여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농어민의 분발심(奮發心)을 일깨우기 위하여 지원을 해 본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부락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부락도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앞으로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우선 급원은 그 대상을 절반으로 줄여 16,000여 부락에 대하여서만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성적이 나쁜 부락은 전부 낙제, 유급을 시키고 성적이 좋은 부락만 올려 이번 2차년도에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 16,000여 부락 중에서 잘하는 부락을 다시 가을쯤에 심사해서 우수한 부락에 대해서는 내년에 3학년생으로 진급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낙제한 부락 중에서 작년에는 성적이 나빴지만 그 동안에 분발을 해서 단결이 잘 되고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왕성한 부락은 다시 선정을 해서 내년에는 2학년생으로 진급을 시켜 금년에 지원한 정도로 지원해 준다. 거기서 또 설적이 나쁘면 낙제를 시키고 좋은 부락은 3학년생으로 진급을 시킨다. 작년에 진급한 3학년생을 다시 심사하여 4학년생으로 진급시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본방침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어촌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본 결과 기대한 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지런하고 잘하는 부락은 우선적으로 도와주자, 이웃하여 있는 부락이라도 한 부락은 상당한 수준으로 소득이 증대되고 부락환경이 개선되어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가 하면, 다른 부락은 아주 뒤떨어진 마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은 하지 않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게

으른 그러한 퇴폐적(頹廢的)인 농어촌을, 부지런히 일해서 잘 살아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농어촌과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공평한 처사라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성장한 부락은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손을 떼어도 될 것입니다. 물론 뒤떨어진 부락들은 불평을 할 것입니다. 잘한 부락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게을러서 뒤떨어진 부락의 불평소리는 크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평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sup>5)</sup>

### “하면 된다”는 생각, 즉 발전친화적인 문화 유전자를 창출한 박정희 리더십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새마을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잘 못하는 기초마을을 우선 지원·육성하는 것이 옳은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의 첫해인 1970년에 정부는 전국의 34,000여개의 마을에 200내지 300포대씩의 시멘트와 약간씩의 현금을 마을 규모에 따라 적절히 지원했다. 그 다음해에 그 성과를 평가한 결과 16,000개의 마을은 100%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나머지 과반수가 넘는 18,000개의 마을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의 공개 및 비공개 암행 감사에 의하면 많은 마을들이 시멘트 포대를 야적해 놓고 비가와도 덮지 않은 채로 방기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 결과를 놓고 제2차년도 새마을운동사업 지원방식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박 대통령은 공화당과 장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당시 인기 없었던 장기독재정권의 명운을 걸면서 까지 과반수가 넘는 성과가 좋지 않은 18,000개의 마을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고 과반수가 안 되는 성과가 좋았던 16,000개의 마을에만 시멘트의 양을 100-200포대 정도씩 늘림과 동

5) 조갑제·김은중(2003), “위대한 CEO 박정희의 특명”, 『월간조선』, 7월호, pp 242-277.에서 재인용.

시에 현금지원도 더 늘려 지원했다.<sup>6)</sup> 그리고 2차 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성과가 없는 마을에 대해 앞으로 자력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해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자 지원을 받지 못한 18,000개 마을 중에서 6,000개의 마을이 자력으로 참여해서 100% 이상의 성과를 내었다. 그 다음에는 6,000개의 마을에 대해서도 지원했다.<sup>7)</sup>

이렇게 해서 박대통령은 전국 마을을 참여도가 가장 낮은 기초마을, 이보다 좀 더 열심히 자조마을 그리고 가장 성과가 높은 자립마을로 구분하고 물자지원을 기초마을은 제외하고 자조마을과 자립마을에만 배분하게 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스스로 돕는 마을만 지원 한다”는 정부의 차별적 지원 정책이 새마을 운동을 열화와 같이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농촌사회에도 소위 “하면 된다”는 발전의 정신을 일으키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만일 두 번째 해에도 평등하게 똑같이 나누어 분배하는 식으로 지원했다면 농촌을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하여 새마을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한 도지사의 역할

오늘날 대한민국은 평등주의사상의 만연으로 차별화원리의 실천이 아주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70년대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옳다는 사회주의적 분위기였다면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한 새마을 운동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경제민주화이념이 만연되면서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지 않는 반시장적 이념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경영도 지역경영도 다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되다는 발전의 정신은 사라지고 나의 실패를 남 탓, 사회 탓하는 국민들이 다수가 되어 있다. 과도한 평등주의 이념으로 국가운영이 이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고 차별화원리의 실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지방자치는 “자치”라 할 수 없을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이 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미미하다. 그러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하여 지사의 권한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다. 그만큼 제주경제의 성패에 대한 지사의 책임이 커졌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제주지사의 가장 큰 과제는 제주사회의 문화유전자를 발전친화적으로 바꿔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여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신상필벌의 새마을운동전략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사회의 문화유전자를 “홍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발전친화적 사고로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항상 성과를 중시하고 자조(自助)하여 성공하는 도민을 우대하고 앞장세워야 한다. 지사는 항상 스스로 돕는 도민을 돕는 하느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홍하는” 기업과 농업경영인과 관광사업자와 도민들을 보다 격려하고 존경함으로써 모든 도민들이 이들을 따라 배우고 모두 성공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주도민들의 평등주의 이념을 극복하고 신상필벌의 차별화원리를 실천하는 지사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지사의 역할이야 말로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6) 김정렴 당시 청와대비서실장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차별적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의 비화는 다음과 같다. 최초 국무회의 결정은 제2차 년도에도 무차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대통령이 차별지원을 고집하여 공화당의 사무총장인 길전식위원과 내무부장관이었던 김현옥장관이 대통령설득에 나섰으나 박대통령은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차별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7) 본문의 새마을운동 실적자료는 김정렴(1990), 『한국경제정책 30년사』, 중앙일보사, p.189~190에서 인용. 여기서 인용한 최초 전국의 마을 숫자, 34,000개는 위의 대통령육성지시내용의 32,000개와 차이가 있는데 어느 숫자가 정확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정렴씨의 기록에 의한 34,000개가 맞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